

• 풍향계 •

대덕밸리 2002 경영성적표, 100억 이상 7개사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올 한해 '경영 성적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벤

처경기 위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대부분 기업들의 매출이 다소 둔화됐지만 몇몇 기업들은 높은 매출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덕넷과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백종태)가 대덕밸리 주요 벤처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은 모두 7개사로 밝혀졌다. 지난해 6개에 비해 1개사가 늘어난 수치다.

최다매출을 기록한 업체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아이디스(대표 김영달)로 조사됐다.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전문업체인 아이디스는 3분기까지 29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4분기를 포함할 경우 거의 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61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아이디스는 이러한 급성장세에 힘입어 美 경제주간지 포브스紙 선정 100대 유망기업선정과 1000만불 수출탑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말 코스닥 정복에 성공한 액정표시장치(LCD) 전문 벤처기업 오디티(대표 이 일)의 활약도 눈부셨다. 오디티는 1998년 오리온 전기 LCD사업팀이 분사한 액정표시 전문 업체로 올해 3분기에 이미 250억원의 매출로 지난해 실적 230억원을 넘어섰다.

非코스닥 기업으로는 광통신 벤처기업 빛과전자(대표 김홍만)와 SI 전문 벤처기업 세림정보기술(대표 이병철)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빛과전자는 지난해 67억원 매출보다 2배 이상 성장한 16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낸 한해가 됐다. 자바기반의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시스템통합기업인 세림정보기술도 지난해 217억원 보다 조금 늘어난 250억원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1호 기업인 블루코드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부진을 씻고 올해 3분기까지 78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고 연말까지 집계하면 100억원 안팎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적외선 통신 수신부품 전문 기업 레이트론(대표 김동철)은 지난 11월 무역의 날에 500만불 수출탑

을 받는 등 올해 100여 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 통합 기업 아론통신기술(대표 윤성재)도 지난해 63억원 매출을 바탕으로 올해 1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해 '대덕밸리 100억원대 기업군'에 등극했다.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인식기술(대표 마천)도 故 이인동 사장의 별세에도 불구하고 73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했다. 이 회사는 하이글논의 판매 호조와 각종 신제품 출시를 통해 올해는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연합회 백종태 회장은 "올 한해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벤처기업들에게 어려운 시기였다"며 "시장을 이해하고 마케팅력을 갖춰하고 있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에게 내년은 한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벤처기업들, 차기정부에 바란다



"하드웨어적인 지원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연계시켜주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이다.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정

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대덕밸리 벤처기업인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선거얘기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입안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과연 차기정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대덕밸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심하는 표정이다.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노무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벤처육성정책의 핵심은 '자금'과 '마케팅'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만큼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자금난과 시장접근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제품개발을 마치고 시장에 런칭을 하고 있지만 벤처기업이

진입하기엔 아직까지 녹록치 않다는 것이 대덕밸리 벤처기업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자금이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마케팅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가씨앤이 최각진 대표는 “요즘처럼 자금 시장이 팽팡 얼어붙은 시기는 창업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시장 진입기의 대덕밸리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양상 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지원 자금이 담보 위주 대출에서 신용대출 등으로 탄력적으로 바뀌 벤처기업들의 진정한 자금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비전 유상근 대표는 “대덕밸리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제품주문이 밀렸음에도 부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생산 및 납품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원활한 자금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대덕밸리 벤처기업 특성상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도 언급됐다. 그동안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반면 자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제대로 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은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에스아이 신용호 대표는 “몇몇 벤처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벤처업계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차기 정부에선 수만개에 이르는 벤처 가운데 진정한 벤처기업만을 가려 선별적이고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백 박재연 대표는 “벤처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급조된 정책으로 큰 틀에서 상당부분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 벤처 육성정책에 기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이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덕밸리 변화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과 막연한 기대감이 상존했다.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한 벤처기업인은 “말 그대로 행정수도 이전이지 경제수도 이전이 아니지 않나”며 “집값 상승과 물가상승, 소비중대 등 대덕밸리 벤처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기대감을 보인 한 벤처기업 대표는 “행정수도가 이전하게 되면 일단 벤처의 첫번째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 관이 가까이 오게 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물론 단시간은 아니지만 과기부나 정통부, 산자부 등 관이 오면 기업에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신제품/신기술 •

선진BI, 무선인터넷 접속장치 ‘블루니’ 개발



▲ 블루니

블루투스 환경에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음성통화는 물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접속장치(AP)가 개발, 상용화 됐다.

정보통신기업 선진BI(대표 이성석)와 모리아 테크놀로지(대표 박기업)는 공동으로 무선으로 인터넷 전화통화(VoIP)와 데이터교환이 가능한 ‘복합기능형 개인기지국’을 개발,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일명 ‘블루니(Blueni)’로 불리는 이 제품은 어른 손바닥 만한 크기로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 사무실 등에서 별도의 인터넷 접속 없이 자체에 VoIP를 하드웨어에 내장시켜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

히트텍, 고성능 히트싱크 개발



▲ 히트텍

대덕밸리 벤처기업 히트텍(대표 주원택)은 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구리와 알루미늄을 접합해 성능을 향상시킨 고성능 히트싱크를 개발, 양산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보다 열전도

율이 1.8배가 높은 구리를 기본소재로 알루미늄 방열판을 접합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고성능 히트싱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일반 컴퓨터의 2.0Ghz대의 인텔 및 애슬론 CPU(중앙처리장치)냉각장치에 사용된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켜 CPU의 고성능화 및 컴퓨터의 무소음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구리와 알루미늄 접합은 접합성 결여 및 심한 모재침식으로 접합이 불가능한 기술분야였으나 생산기술연구원의 접합팀과 공동으로 모재 침식억제 공법을 개발하는데 성공, 특허출원을 마쳤다.